



artist

# VEE SPEERS



(Bordello #1 08) 피레슬 프린트

## 매혹, 그 아늑스적 아름다움

독일 사진작가 안드레 겔프케(André Gelpke)는 사진작업을 대화에 비유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진작업이 자신 안에서만 이어지는 독백이던 혹은 주변인과의 연결고리이던 형식의 전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작가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누가 됐건 무엇이건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자세와 소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맥락에서 비 스피어스(Vee Speers)의 작업에는 차가우면서 따뜻하고, 노골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세상과 작가와의 대화가 존재한다. 끈근하게, 때론 투려투로 이성과 관성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는 작가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지만 비주류로 치부될 수 있는 소재를 작품에 이입한다. 처음 작업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작가는 끈질기게 관찰하고, 그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든가를 고민한다. 그 후에 고려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시각적 인상-과감한 형태나 빛바린 색, 장식 없는 흰 벽 등-이다. 체계적으로 세우진 계획은 벽들을 쌓아올리는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명확한 모습으로 다듬어진다. 이는 작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실험을 두려워 않는 그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과 예술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작가에게 작업이란 자신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매체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거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이혜련 기자 • 사진 Vincent Long

마흔부에서 아이들까지 다양한 인물 군을 담아내는 비 스피어스(Vee Speers)는 1962년 호주 뉴캐슬에서 태어났다. 브리즈번에 위치한 QCA(Queensland College of Art)에서 순수미술과 사진을 전공했다. 1980년대에는 ABC방송에서 스틸 포토그래퍼로 일했으며, 1990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영국 'The Sunday Times', 러시아 'Photo and Video', 'Chinese Photography', 'Swedish Foto', 'Bloom, Arte Al Limite', 'Photo Romanò', 등 수많은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그의 전시는 런던, 파리, 마이애미, 뉴욕, 중국,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 등에서 개최되었다. (Bordello) 시리즈를 엮은 작가의 첫 번째 책인 유명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시문을 썼으며, 그의 두 번째 책 (Birthday Party)는 지난 2008년 발행되었다. 그의 작품은 엘튼 존(Elton John), 조지 이스트먼 하우스(George Eastman House), 마이클 윌슨(Michael Wilson) 등이 소장하고 있다. 최근 작가는 지난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개관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진 박물관 포토그래피스카(fotografiska)에서 열린 개인전시에 오는 9월 5일까지 참여하고 있다. 비 스피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소개는 웹사이트 (www.veespeers.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Untitled #37) Aludibond에 C-프린트 디아섹 90×72cm 2007 2. (Untitled #16) Aludibond에 C-프린트 디아섹 90×72cm 2007 3. (Untitled #20) Aludibond에 C-프린트 디아섹 90×72cm 2007 4. (Untitled #6) Aludibond에 C-프린트 디아섹 90×72cm 2007

작가는 정형화된 이미지에 여러 겹을 덧씌우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화면 안에 배치한다. 예를 들어 비스피어스가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Bordello〉 시리즈는 매춘부들의 누드 사진이다. 파리 흥풍기에 살던 작가는 매일 마주하는 그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면밀하게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고전적인 누드가 몸 자체에 집중한 것이라면, 작가는 '종종' 이란 주제 아래서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모습과 그것이 갖는 시적인 무아함을 동시에 끌어내려 했다. 선입견에 갇힌 이미지에서 조심스럽게 아름다움을 발견 하듯,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은 최근작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The Birthday Party〉 시리즈를 처음 접할 때, 관객들은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감수성과 함께 언뜻 내비쳐지는 폭력성을 감지하게 된다. 아이가 성장하기 전, 어린 시절의 몇 장면을 간직하고 싶었다는 작가는 막내

딸을 카메라 앞에 세운다. '가상 파티'에 초대받고 각자의 개성과분위기에 따라 의상과 소품으로 치장한 아이들은 무심하게 카메라를 바라본다. 가장 행복한 날'과는 대조적으로 작물 곳곳에 감도는 적막과 평평한 긴장감,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는 듯 보인다.

사진 이미지가 전달하는 아이들의 앙증맞고 경쾌한 모습과는 달리 작가가 이를 통해 끌어내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거나 유쾌하지 않다. 전쟁이나 테러에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는 현대인들의 단면을 아이들에 빚낸 그의 작품은 '가상 파티'란 흥겨운 주제와는 상치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세운 세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한다. 어른 없이 아이들만으로 가득한 곳. 아이의 눈을 통해,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던 작가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들을 지배적인 위치에 놓는다. 이는 어른들의 전유물이었던 힘의 권력을 자

연스레 아이들에게 실어주려는 의도이다.

작가가 촬영 중 흥미를 느낀 점은 남자 아이들의 행동이었다. 그들은 전무도구를 호기심과 재미로 착용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총으로 싸우고, 전쟁놀이를 하는 등 남자아이들의 본능이고 그들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오래 당연시 여기는, 보편적인 놀이가 된 광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가는 남자 아이들에게 그들의 몸에 비해 큰 총을 들게 하고, 인형에 파묻힌 것 같은 또는 뒤돌아선 채 가위질 등 아이들을 사진 속에 등장시킨다. 총과 군모, 권투 장갑, 얼굴을 가린 괴기스러운 마스크 등 아이들은 각자 들고 있는 오브제로 무자비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무의식적으로 폭력에 심취해있는 아이들을 보며 작가는 이것이야말로 아무런 여과 없이 그들에게 비친 어



1. (Bordello #35) 프린트 2. (Bordello #58) 프린트 3. (Bordello #3) 프린트

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놀이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한 장면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어나는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을 상기시킨다. 이유 없이 정지에 이용되고, 전쟁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실제로 총을 다루는 아이들 말이다.

작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작품 곳곳에 끼워 넣는다.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현실을 미화하는 대신, 아름답고 안락함이 유년시절 전부가 아님을 작가는 되새긴다. 그곳에도 분명한 선과 악이 존재하고, 상상력과 모근함만큼이나 위험과 공포도 존재한다는 것. 이를 통해 유년기의 모든 단면, 말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 숨겨진 적나라하고 폭력적인 면을 알게 된 이들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잔인한 현실과 아이들을 연관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 비틀기나 꼬집기가 아니다. 그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익숙해져 버린 현실의 반대편을 들추는 것이다. 아직 보호 받아야 마땅한 어린 아이들에게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작

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나아가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작가는 <Immortal>이라는 작품을 통해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영원한 젊음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남자에 대한 이야기,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에서 일부 영감을 얻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상상 속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르네상스의 그림과 비슷하리라 생각한 작가는 그의 작업이 그것과 미학적으로 닮아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의 여성들(18세에서 25세)을 사진에 담는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작가의 고향인 호주 풍경과 결합하여, 마치 현실이 아닌 듯한, 하지만 어딘가에 존재할 법한 이질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비 스피어스가 다루는 소재(매춘부들, 무의식적으로 폭력에 몰든 아이들,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파리 시만)는 제각각이지만, '자극적이지만, 비주류로 치부될만한 소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양한 인물 군으로부터 그가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관심과 연민'이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피사체를 찍는 것이 아닌, 켜켜이 새겨진 이야기를 관객에게 상기시킨다. 각각의 시리즈들은 다른 주제와 시각 효과를 내면서도 내부와 외부, 놀이와 꾸밈에 기초한다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우리가 숨긴 채 보이는 것과 속,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매개체로 말이다. ■

